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한문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③	5	①
6	①	7	⑤	8	③	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③	14	④	15	②
16	⑤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⑤	22	②	23	②	24	④	25	①
26	③	27	⑤	28	④	29	④	30	⑤

해설

1.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낮잠’을 뜻하는 ‘午睡’를 찾는다.

2.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坤’과 반대되는 뜻의 한자는 ‘乾’이고, ‘明’과 반대되는 뜻의 한자는 ‘暗’이다.

3.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부수와 획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4.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법 전(典)’자이다.

5.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가로 열쇠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이고, 세로 열쇠는 ‘대기만성(大器晚成)’이다.

6.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자제(自制)’는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7.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발음은 모두 다르며, 표기도 다른 경우가 있다. 한자는 같지만 한·중·일이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항이다. 중국어에서 ‘방심’은 우리의 ‘안심’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옛날 중국의 황향이 홀로 된 아버지를 위하여 무더운 여름날 잠자리에 부채질을 해서 시원하게 해 드린 고사를 활용하여 관련된 성어를 찾는다. ‘혼정신성’은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는 잘 주무셨는지 살핀다’는 뜻이다.

9.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여덟 개의 글자 카드 중 네 자를 추출하여 성어를 완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동가홍상’이다.

10.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날아간다.

ㄱ, ㄷ은 ‘발’, ㄴ, ㄹ은 ‘족하다’는 뜻이다.

11.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교정(校訂):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글귀를 바르게 고침. 교정(教程): 가르치는 정도, 가르치는 방식. 교정(敎正): 가르치어 바로잡음.

12.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업신여긴 뒤에 남들이 그를 업신여긴다.

‘자중자애’는 ‘자기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 언행을 신

중히 하고, 제 몸을 사랑함’이라는 뜻이다.

13.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된 지문은 ③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와 관계가 있다. ①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는다. ②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다. ④ 사람을 의심하면 등용하지 말고, 사람을 등용했으면 의심하지 마라. ⑤ 선행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14.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된 그림은 ④ ‘떨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뜻의 한문 속담과 관계있다.

15.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 사람이 살면서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길을 다니는 것과 같다.

㉠ ‘道’는 ‘말하다/도리/길’, ㉡ ‘如’는 ‘같다/만약’의 뜻을 가지고 있다.

16.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웃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이 좋다.

[17~18]

허생이 책을 덮으며 일어서며 말하기를, “애석하다. 내가 책을 읽기를 본디 10년을 기약했는데 지금 칠 년째로다.” 하고 문을 나서서 길을 가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 곧바로 운중가로 가서 저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요?”라고 하니, 변 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을 안다.

⑤는 술목 관계의 단어이다.

18.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은 ‘누구’라는 의미이다.

[19~21]

한식의 묘제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체나라 사람들이 ‘냉절’이라 부르고, 또는 ‘숙식’이라고도 말하였으니, 생각건대 개자추가 불에 타 죽은 것을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 불을 금지하는 것에서 남겨진 풍속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설날, 단오, 추석과 더불어 사대 명절로 여기니, 곧 우리의 풍속이다.

19.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은 ‘又’와 같이 ‘또한’이라는 뜻이다.

20.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1.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2~23]

무릇 천자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것인가? 장차 하늘이 천자를 내려 보내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 천자가 되는 것인가? 천자는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릇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성립되었으니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5가가 뜻에 맞지 않으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을 바꾸고, 5린이 뜻에 맞지 않으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을 바꾸고, 구후와 팔백이 뜻에 맞지 않으면 구후와 팔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꾼다.

22.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된 글은 모든 권력이 군주와 관료에게 집중된 조선 후기의 상황을 고민한 글로, 정약용의 민주 사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현대의 ‘주권재민’ 사상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24~25]

임제는 기개가 호방하여 단속함이 없었다. 병이 들어 장차 죽으려 할 때에 여러 자식들이 슬프게 우니 임제가 말했다. “사해의 모든 나라들 중에 황제라 칭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누추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그 죽음이 어찌 죽히 애석하겠는가?” 울지 말라고 명하였다.

24.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은 ‘여러’의 뜻일 때는 ‘제’라고 읽고, ‘之於’의 축약형 일 때는 ‘저’라고 읽는다. ㉡은 ‘올다’로, ㉢은 ‘칭하다’라고 풀이되며 ㉣의 주체는 ‘임제’이다.

25. [출제의도]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임제는 봉건적 질서가 심화되고 인간 행동이 규범화되었던 중세 사회에서 일탈을 꿈꾸었던 개성적인 인물로, 주체적이고 호방한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

[26~27]

송나라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옥을 얻어 자한에게 그것을 바치니 자한이 받지 않았다. 옥을 바친 사람이 말하기를, “옥인에게 보여 주었더니 옥인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한이 말하기를 “나는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기고, 너는 옥을 보배로 여긴다. 만약 나에게 준다면 모두가 보배를 잃는 것이니, 사람마다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였다.

26.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以~爲…: ~을(를) ...라고 여긴다.

2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或’은 ‘어떤 사람’으로 풀이한다. ‘以’와 ‘爲’ 사이에는 ‘玉’이 생략되어 있고, ‘之’는 ‘그것’이란 뜻으로 옥을 가르킨다.

제시된 지문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만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준다.

[28~30]

(가)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밤중에 작은 소리를 내도다./눈이 다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면, 새싹은 얼마나 돌아날까?
(나) 봄밤의 일각은 천금이나 값이 나가니./꽃은 맑은 향기가 있고 달은 그늘이 있다./누대에서 나는 노랫소리와 악기 소리는 그 소리가 가늘고,/그네가 (나무에) 걸려 있는 정원은 밤에 어두컴컴하다.

28. [출제의도] 한시를 읽고 풀이한다.

㉢은 ‘값이 나가다’(=値)로 풀이된다.

29.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의 운자는 ‘金, 陰, 沈’이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시의 기·승구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다가 밤이 되자 작은 소리를 내는 모습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였고, 전·결구는 봄비가 내린 후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나)시는 달빛과 꽃향기가 어우러진 봄밤의 정취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